

짧은 기간에 얻은 영어논문 쓰기의 산지식

김 학 칭*

나는 올해 박사과정에 입학한 만학도이다. 만학도인만큼 학교생활 중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보 획득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던 차에 교수학습센터에서 주최하는 <제5차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논문작성법 워크숍> 개최 소식을 학교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평소 과학기술 글쓰기(technical writing)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관련 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워크숍에 등록하였다.

공대생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속설이 있다.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졸업 후 5년 안에 매니저가 될 수 있다.’ 공대생들이 글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표현력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기술을 전공하는 공대생들은 대체로 의사소통 분야에는 관심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은 분석(analysis)하고 통합(synthesis)하는 분야에는 강하지만, 의사소통의 기술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더욱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공대생들에게 영어로 글 쓰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필자도 신입생이라 주 전공 관련 연구에 많은 시간 할애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학기 동안 영어 논문 쓰기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이번 워크숍 역시 유익함을 기대하고 등록하게 된 것이다.

<영어논문작성법 워크숍>은 총 3회의 연속 강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관심도를 반영하듯 1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메운 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참석 인원이 100명으로 한정되어 좀더 많은 학생들이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워크숍은 짧은 시간 내에 ‘영어논문 이렇게 쓴다’는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세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영어 기술 논문 작성 법(technical report writing for second language English users)’이라는 주제로 Milanaik 교수(고려대학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국제어학원 초빙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유인물은 지침서(Instruction) 분야와 실습(Practice) 분야로 나뉘어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차후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작성되어 있었다. 강의 내내 열정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글쓰기 중 발생하기 쉬운 문법적 오류를 예를 들어 지적하고 수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직접적인 이해를 도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학습 교보재 활용은 신선하고 유익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이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에서 가끔 벗어나 인터넷 검색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학생들

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주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무 기초적인 표현(예: 학생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등의 내용)이 반복되었다. 준비한 많은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을 강조하는 압축적인 강의가 학생들에게 좀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날은 ‘이공계별 특성에 맞는 논문 구성과 전개’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김용욱 교수(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초빙교수)님의 영어 강의가 진행되었다. 좋은 글쓰기 방법(quality measures)의 기본 단계(basic step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정확성(clarity), 압축성(compactness), 실질적 가치(intrinsic values), 신뢰성(credibility)에 관련된 내용이 인상 깊었다. 이 강의를 통해 글쓰기에 있어 정확성(clarity)과 연계성(cohesion)의 중요성과 이공계 글쓰기(scientific writing)가 일반 글쓰기와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수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예정된 나머지 1시간은 글쓰기 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논문작성법 워크숍〉에서 David Milanaik(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초빙교수)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7월 7일 Milanaik 교수가 강의한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논문작성법은 신선향과 유용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습으로 보낸 점이 다소 아쉬웠다. 그러나 워크숍 종료 후에 학생들의 원고 하나 하나를 수정·보완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워크숍에 대한 교수님의 관심이 학생들의 열성에 못지않음을 느끼게 하였다.

셋째 날은 ‘외국학술지 투고’란 제목으로 순천향대학교의 김형순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학술 논문의 작성, 투고, 심사, 인쇄, 배포하는 전 단계를 준비된 슬라이드와 유인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훌륭하게 강의해 주셨다.

구체적인 예제 제시와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예제 형식을 빌려 조목조목 설명해 이해를 도왔고, 강의를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배움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을 알아서 긁어 주셨던 면도 있지만, 우리말과 글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어 편안하고 가장 유익했다.

국제학술지 편집위원(editor)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터득한 산지식(know-how)을 직접 전수받는 듯한 신선함을 느꼈다. 주요 핵심 내용을 ‘왜 연구를 하였는가?(Why),’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How),’ ‘무엇을 찾았는가?(What),’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So What)’로 분류하여, 실제 논문을 예로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을 오랫동안 맡아 온 김형순 교수(순천대학교 금속재료공학부)는 7월 9일 이날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성실히 전달하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들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슬라이드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 외에도 평소 궁금했던 ‘The ~, Notes ~, Approach to ~’ 등의 불필요한 용어를 주제(title)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초록은 과거(현재)시제를 쓰고, 서론은 현재 시제를 쓰며, 실험 방법 및 결과는 과거 시제를 쓰되 강조를 위한 현재 시제를 쓰는 경향이 있음도 강조되었다. 요약은 발견한 것(연구 내용)들을 간단히 기술한 것이고, 결론은 발견한 것(연구 내용)들의 중요 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초록은 발표 논문을 전혀 읽어 본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논문의 연구 내용을 전달하도록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요약(summary), 결론(conclusion), 초록(Abstract)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셨다. 이처

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유익한 강의였다.

비록 단기간의 워크숍이었지만 올바른 영어논문 쓰기 방법과 글쓰기를 위한 논문 읽는 방법을 배웠다. 심사 위원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으로부터 외국 학술지 심사 위원의 심사 방법과 입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영어논문 작성 시에 간과하기 쉬운 논문 지도 교수님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예절과 겸손한 자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

그러나 워크숍은 영어논문 글쓰기의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요 내용을 정립하는 장점은 있으나, 피드백이 가능한 실습이 부족했다. 또 시험과 같이 학생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구체적인 실력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학생 개개인의 수강 이유와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6차 워크숍에서는 수강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모든 강의의 포커스를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면 압축적 강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본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최한 <영어논문작성법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쳤다. 영어논문작성법은 공대생들에게 있어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공감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 같은 체계적인 영어논문 쓰기 공부가 공학 연구에도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